



전북대, 베트남 바이어상담회 개최 · 협약 체결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최근 베트남 현지에서 JB Global Stylish Investment 행사를 개최 5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바이어 상담회에는 전북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과 창업교육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가 함께 참여해 초기 및 도약기 창업기업 뿐 아니라 실험실 창업기업 예비 학생창업가의 창업 후 해외진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상담과 수출계약 등을 진행했다.
이번 상담회에서 초기 창업기업 5곳은 현지 바이어와 총 46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5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오엔엠포(피)는 8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해외 투자 기업설명회에 참여한 희망전북 POST B 입주기업(주)인인더스를 비롯한 창업기업 및 실험실 창업기업은 총 12건의 투자 의향서를 확보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체육회,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직무대행 강중구)는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도 체육회 임직원들은 연탄은행의 협조를 받아 전주의 한 마을을 방문, 약 1200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했다. 이번이 배달된 연탄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 체육회 강중구 회장 직무대행은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탄봉사활동에 나섰다"며 "도민과 함께하는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주비전대, 성탄트리 점화식 가져

전주비전대학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누리에 비추는 성탄트리점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저녁 6시 한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로 이어지는 시간까지 감사와 희망을 전하고 나누기 위한 성탄트리점화 행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전주비전대학교 교목실과 선교지원팀은 미얀마 등 동남아권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위한 '사랑나눔비자'를 열었다.
한편 전주비전대 성탄트리는 내년 1월까지 캠퍼스를 비롯한 인근 주변을 환히 비추어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가족센터, 청소년 30명에 장학금 전달

남원시는 지난 1일 남원시가족센터(센터장 이상덕)가 관내 청소년 30명에게 30만원씩 총900만원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자들은 관내 10개소 고등학교, 청소년 기관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추천으로 고등학교 3학년제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했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 10월 행복 나눔 바자회로 마련한 수익금(600만원)과 정기적인 후원금(210만원)으로 준비했다. 장학금 지원을 받게 된 이모양은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에 수시 합격한 사실도 기쁘게 덩으로 장학금까지 받게 되니 감사하면서 행복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노사공동 ESG추진위 구성 선언”

전북 신보, 창립 20주년 맞아 기념행사 · ESG경영 선포식

전북신보보증재단(이사장 유용우, 이하 '전북신보')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재단 임직원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20주년 기념행사 및 ESG경영 선포식'을 지난 1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신보보증재단 20년사 발간 Our-history' 영상 상영을 진행으로 지난 2002년 창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전북신보 20여 년 간의 역사와 직원들의 희로애락을 담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됐다. 전북신보는 이번 창립기념을 통해 "급속하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 시장 환경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지원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전북신보의 지속성장을 위해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으로 전라북도 도정과 도내 중소기업의 기대에 부응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노사 공동의 '전북신보보증재단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또 ESG경영 선언문을 통해 "노사공동 ESG추진위원회 구성을 선언하고, ESG실현을 결의하며 ESG선도기관으로 나아갈 것"을 선포했다.
이어 사회적 가치의 일환으로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기부금 조성을 통해 만들어진 '헤드립 봉사단'을 창단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 공헌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도 밝혔다.
유용우 전북신보 이사장은 "재단은 혁신적인 노력으



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기관으로 성장했다"며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도내 중소기업인을 찾아 먼저 힘이 되는 소상공인 희망 플랫폼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전북신보는 "지난 2002년 12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라는 설립 목적과 함께 자본금 102억 원, 10여 명 이내 임직원으로 첫 발을 내딛은 전북신보는 경제위기마다 도내 중소기업인의 버팀목 역할"을 묵묵히 해냈다.
현재 전북신보는 자본금 약 2,400여 원을 바라보고 있으며, 보증공급 누계액 5조 원달성,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비금융 지원으로 재단 역할을 확대하며 도내 유일의 공적 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영태기자



이미션 남원시의원, 호남을 빛낸 인물 대상 수상

남원시의회 이미션 의원이 대한민국 민생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주최 2022년도 제4회 호남을 빛낸 인물(민생경제공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미션 의원은 재선 시의원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입법활동과 민생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지역인을 위해 노력했다. 또 제2대 남원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5분자유발전 및 시정질문, 조례안 및 건의안 발의, 의원연구단체 활동 등 각종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남원시 민생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한 이미션 의원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남원의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호남발전에 공헌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호남인을 선정하는 이번 시상식은 2일 광주 광주호텔에서 개최됐으며 행정, 단체장, 부문, 기초의원 부문 등 여러 부문에서 32명의 수상이 있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정범 예수병원 교수,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1등급 획득

앞으로 관상동맥우회술에서 예수병원 최정범 교수의 기대가 한층 높아졌다.
예수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8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지난 2일 획득했다.
관상동맥우회술이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장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허혈성심장질환(심근경색 또는 협심증)으로 좁아진 관상동맥을 대체할 수 있는 혈관을 연결해 혈류를 공급하는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고난도의 수



술이다.
이번 7차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년 10월부터 '21년 9월까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종합병원급 이상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예수병원은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 재수술률,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퇴원 30일 내 재입원율' 등 주요 평가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신중식 원장은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애써준 심장혈관외과 최정범과장님 외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예수병원은 도·시민들에게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한국건강, 스포츠 친화기업 인증 획득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2년 스포츠친화기업 인증' 시범사업에서 공공기관 부문 스포츠 친화기업으로 지난 11월 25일 인증받았다.
본 인증은 대상기업을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으로 분류해 경영체 리더십 지원제도, 예산 인프라, 직원 만족도 등의 평가지표를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유효기간은 3년이다.
건협은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스포츠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건협은 '직원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스트레스 교육 및 마음건강평가, 직원 및 직계가족 건강검진 지원, 지역사회 스포츠대회 후원, 스포츠동호회 운영, 사내 헬스장 및 운동시설 설치, 온직원 워크온(Walk On)' 등 다양한 스포츠 친화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김인원 회장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스포츠 활동이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도내 곳곳 취약계층 돌보는 따뜻한 나눔 기탁 이어져

전북도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 선물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2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장경민 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장, 남궁태업 전북장애인주거복지협회장, 유병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물품 기탁식을 가졌다.
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는 10kg들이 백미 600포대(1,500만 원 상당), 전북장애인주거복지협회는 산산잔액 240상자(2,000만원 상당)를 전북도에 기탁해 왔다.
이들 기부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독거노인 장애인시설, 다문화가정 등 연말연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장경민 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장은 "NH농협은행이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동시에, 우리 쌀 나눔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같은 뜻깊은 기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궁태업 전북장애인주거복지협회장은 "날씨가 추워질수록 장애인과 취약계층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산상의 기운을 전달받아 그분들이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진안군 자율방범대연합회, 진안사랑장학금 기부

진안군 자율방범대연합회(회장 고명수)는 한마을대회를 통해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고명수 회장은 "우리 역할은 관내 범죄를 예방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 학업에 열중하여 진안을 빛내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 방범대원들의 역할이다 생각하여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전했다.
전춘성 이사장은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고 질서유지를 위해 힘써주는데 더불어 인재육성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니 감사드립니다"며 "진안발전을 이룰 미래 인재육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군 자율방범대연합회는 관내 지역의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방범 활동을 수시로 실시하여 범죄 없는 고장 만들기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시 교통행정과,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 교통행정과가 지난 1일 야간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한 순찰 활동과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순찰이 끝난 뒤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일탈행위를 막고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
이날 교통행정과 직원 9명은 야간에 청소년 비행 발생이 우려되는 인적이 드문 공원 등을 순찰하면서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귀가시키고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들을 방문하여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펼쳤다.
박진희 교통행정과장은 "정부에서 순찰팀 직후부터 울연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함에 따라 특히 무면허 렌터카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렌터카 업체에 철저한 운전 자격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곽태 기자



새만금청, 해외 공무원 새만금 현장 초청 행사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지난 2일 새만금 현장에 해외 공무원을 초청해 새만금을 소개하는 교류 활동을 펼쳤다.
이번 새만금 현장 방문에는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개발도상국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홍보관·33센터, 육상태양광 발전 시설, 동서도로, 고군산군도 등을 안내하면서 새만금 개발 현황과 산업단지 기업 입주상황 등을 설명하고, 신산업의 중심지로서 새만금의 비전을 소개했다.
현장을 둘러본 해외 공무원들은 국내 최대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과 새만금 방조제 건설과정,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참석한 해외 공무원들은 "새만금의 큰 사업 규모와 다양한 사업 내용이 놀랐다"면서, "특히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그린 산단 등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새만금의 혁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교류협력과정은 "현재 새만금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트라이 포트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고, 내부 개발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